



## ‘ALL OF VISUAL’ 제19회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

국내 유일의 국제 사인전시회인 ‘제19회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KOSIGN 2011)’이 지난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코사인전은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를 포함해, 국내외 사인산업 전반의 아이템을 총망라해 전시되었다. KOSIGN2011은 ‘ALL OF VISUAL’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인, 디스플레이, 공공 디자인 등 시각과 관련한 모든 요소를 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전시회는 미디어 아트, 광고 및 홍보, 게임, 전시의 경계가 무너지는 옥외광고업계의 트렌드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특별관으로 ‘Space Design Show’를 개최하는가 하면 부대행사로 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수상작 전시관, 세계 3대 광고제 수상작 전시관, 바이어 리셉션 등을 마련해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된 ‘2011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의 수상작은 총 117개의 작품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47점을 선정했다. 대상인 대통령상은 주혁범 씨가 출품한 ‘부뚜막’이 선정됐으며 국무총리상에는 이준석 씨가 출품한 ‘새송이’가 선정됐다. 한편 주최사인 코엑스는 공인 국제전시회라는 코사인전의 신뢰성 강화와 보다 과학적이고 정량화된 전시회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갤럽에 의뢰해 ‘2010년 KOSIGN 전시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 디젠, 3.3m 광폭 디지털프린터 선배

디젠(대표 이길현)은 KOSIGN 2011에 참가해 3.3m 광폭 디지털 프린터 Teleios Grande(모델명 d.gen 3333TX)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Teleios 시리즈는 3.3m 광폭 DTP 프린터 'Teleios Grande'로 디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린트 엔진을 사용한 제품으로 최신식 리코사의 GEN4L 프린트헤드와 각 컬러 당 1152개의 노즐(기본4색, 옵션6색)로, 시간당 최대 180㎡/h(2pass기준)의 높은 생산성을 갖고 있다. 또한 Disperse dye ink 또는 텍스타일 피그먼트 잉크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소프트-시그너지 분야 뿐만 아니라, 침장구류 등을 위한 면직물 중심의 텍스타일 제작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디젠의 이길현 사장은 "이번 전시회에는 실사 출력기인 Hi-Fi JET PROII의 신 모델 'New Hi-Fi JET', 친환경 UV램프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UV프린터 'LEJ-640', 다양한 소재에 출력 가능해 소량 다품종 생산을 위한 LEF-12 등도 함께 출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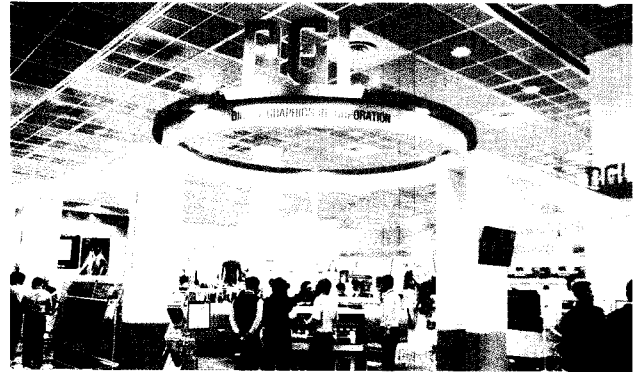
### HP, 리텍스 잉크 사용하는 사이텍스LX850



한국HP(대표 함기호)는 수성인 리텍스 잉크를 기반으로 하는 'HP 사이텍스 LX850' 프린터를 출품,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HP 사이텍스 LX850은 수성 기반으로 혁신적인 HP 리텍스 잉크를 장착해 환경, 건강, 안전에 대한 위험 없이 냄새가 나지 않는 출력물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로 인해 작업장에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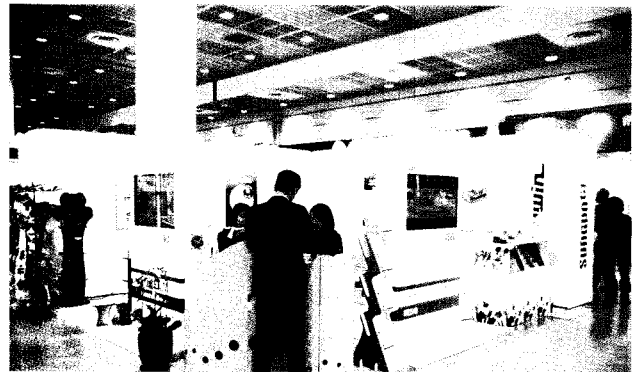
도의 환기장치가 필요 없고, 기존의 유성 잉크 출력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독특한 냄새가 없어 실내용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프린터 자체 내부에서 완벽하게 경화 및 건조돼 출력되기 때문에 작업 후에 즉시 사용할 수 있어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

### 디지아이, 복잡한 공정 개선으로 관심 끌어



디지아이(대표 최관수)는 이번 전시회에 기존 날염 공정의 환경적인 문제 및 복잡한 공정을 개선한 친환경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 'Fabrijet(FT-1806)'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주로 출시된 장비를 디지아이가 독자기술로 개발해 다품종 소량화 및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가 강조되는 섬유산업의 트렌드에 맞게 최적화한 장비다.

### 성도솔루윈, 디스플레이용 소재 '리-보드' 전시



그래픽 솔루션 제작업체인 성도솔루윈(대표 김상래)은 이번 전시회에 디스플레이용 소재인 'Re-board'를 전시했다. 리-보드는 디스플레이, POP, 건축자재를 대체하는 신소재로 가볍고 단단하며 사용자 편의와 고객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 제품은 스웨덴에서 제작된 FSC 인증의 100% 친환경 소재로 재사용과 리사이클이 가능하며, 다양하고 유니크한 디자인 표현을 할 수 있다. 성도솔루윈은 일본 후지필름의 그래픽 아트 한국 총 책임기업이기도 하다. ☺